

티몬, 수장교체·판매자 상생 강화... '테슬라 요건' 정조준

지난 달 아트리스 장윤석 대표 영입 공동대표체제로 라이브커머스 강화 성장잠재력 통해 코스닥 입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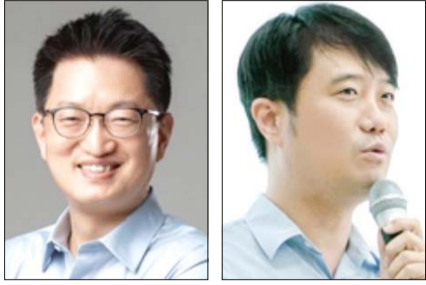
하반기 상장을 계획중인 티몬이 수장 교체와 판매자 상생 정책 등 거듭 변신을 꾀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티몬은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을 통해 연내 증시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슬라 요건은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힘썼고, 덕분에 전년 대비 외형은 14% 감소했지만, 작년 연결기준 매출 1512억원, 영업손실 631억원을 기록하며 손실 규모는 131억원 줄었다. 올 초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하는 한편, 전환사채도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장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티몬은 장윤석 공동대표 선임을 기점으로 라이브커머스에 힘을 실어 타 이



전인천 대표

장윤석 대표

커머스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티몬은 지난 달 16일 콘텐츠플랫폼 기업 아트리스 장윤석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한 바 있다. 아트리스는 피키캐스트의 운영사로 크리에이터가 진정성 있게 선별한 브랜드와 상세한 상품 설명, 고객간 소통에 중점을 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티몬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아트리스의 경쟁력을 티몬에 접목해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장윤석 대표는 취임 이후 직원들과 첫 소통 자리에서 "좋은 자산을 가진 티몬의 '커머스 DNA'에 '콘텐츠 DNA'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라"며 "이를 실행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

/티몬

할 조직과 기업문화, 일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체질개선을 강조했다.

이번에 합류한 장 대표는 서비스 부문을 전담하고 기존 전인천 대표는 IPO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티몬에 따르면 전인천 대표는 등 기입원에서 물러났다.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인이 이끄는 사업을 지휘할 계획이다.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경쟁력을 강화, IPO를 앞두고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기준 3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3년까지 8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 측은 "직매입을 줄이고 사업 효율화를 통해 3년 연속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큰 폭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올해는 핵심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등으로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예정"

이라고 말했다.

티몬은 판매자와의 상생정책을 펼치며 외형성장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국내 이커머스 최초로 판매 수수료 마이너스 정책을 도입했다.

티몬의 '판매 수수료 -1%' 정책은 파트너사가 추가 옵션 없는 '단품등록'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판매 대금의 1%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오픈마켓 특성상 다양한 판매자를 유치하면 선택지도 덩달아 많아져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결국 소비자 만족은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매자와 플랫폼, 소비자 모두 원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 티몬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외부인재 영입에 나서며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신세계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더욱 치열해진 이커머스 시장에서 티몬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순수전기차 등 향후 3년간 130종 국내도입” “평균 측정시간 1~2초, 온도 오차범위 0.3℃”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기자간담회

수입차 시장 돌아보고 미래 대응 친환경 등 5대 전략적 방향성 발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 시장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AIDA는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 26년 역사와 함께 5대 전략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르네코네베아그 회장(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 임한규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수입 승용차 16개사의 23개 브랜드와 상용차 4개사의 4개 브랜드가 소속된 KAIDA는 1995년 창립 이후 수입차 관련 통계 집계와 관련 정책 검토, 소비자 편의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KAIDA에 따르면 1995년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량은 6900여대로 시장 점유율은 0.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7만여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25년만에 40배로 성장했다. 특히 수입차 판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왼쪽부터), 르네 코네베아그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자동차협회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열린 2021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량은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0% 이상의 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KAIDA는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내부 조직을 개편해 수입차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로서의 영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KAIDA는 5가지 전략적 방향으로 ▲ 친환경 ▲ 적극적인 소통 ▲ 투명성 제고 ▲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여 ▲ 사회공헌을 제시했다.

KAIDA는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마일드하이브리드 모델 46종, 일반·플러그인하이브리드 32종, 순수전기차

53종 등 총 130종 이상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차업체를 대표해 소비자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조직을 워킹 그룹 단위로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또 통계자료와 데이터 제공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 등 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르네 코네베아그 KAIDA 회장은 "새로운 전략적 방향성을 추구함에 있어 새로운 이사회와 홍보, 대외협력 등 다양한 워킹그룹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

한국소비자원·식약처 적외선 체온계 10개 제품 분석

거리인식센서 유무에 따라 시간 차 구매가 최저 4만6000원~9만8000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가 급증한 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주요 기능인 측정 온도 정확도는 최대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체온계는 매우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 환경에 노출된 이후 일정 시간 온도 측정이 불가능했다. 또 8개 제품은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측정 거리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고, 측정 시간은 대부분 1~2초 이내였으나 1개 제품은 측정 시간이 5초 이내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물의약품안전처는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험 평가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과 제품특성을 대상으로 했다.

시험 결과를 보면, 피부적외선체온계의 주요 기능인 온도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인 ±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또 제조사별 권장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5회 연속 측정할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인증번호 등 일부 항목을 미기재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해 1개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참가자 문진표 점검 후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체온계를 -20℃의 저온환경과 50℃의 고온환경에 각각 2시간씩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고,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넥스(BNT400), ㈜인트인(YT-1)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체온 측정 시간은 1초 이내~5초 이내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 체온계 무게는 9g~126g으로 차이가 컸고, 분유나 목욕물 등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사물 온도 측정, 측정한 체온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등의 부가기능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은 최저 4만6000~9만8000원으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DD, '바이오항공유' 제조기술 확보

식물성 팜유 활용, 연 5톤 규모 제조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이하 ADD)는 식물성 오일인 팜유를 이용해 '바이오항공유'를 연 5톤 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ADD의 바이오항공유 제조기술 확보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 자립화'와 '탄소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항공유 제조에 필요한 식물성 오일의 탈산소 반응, 분해 및 구조전환 반응용 고체촉매 개선 및 반응기술 등

은 ADD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ADD는 ▲식물성 오일의 연료저·고온분무특성 ▲기초연소특성 ▲연소효율 등을 석유계 항공유와 비교하고 군용 터빈엔진 적용시험을 실시해 바이오항공유가 대체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